

장성에 대형 싱크홀…불안에 떠는 주민들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주변 농경지 10년전부터 땅꺼짐

주민 “업체, 논 주인 허락없이 싱크홀 시멘트로 메워”

10여곳… KTX 노선과 불과 100m 거리 대형사고 위험

장성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 농지에서 10여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싱크홀 발생지점이 KTX선로와 불과 100m 거리여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피해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업체가 이를 파악하고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장성시민연대와 와룡리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와룡리 1만6500㎡(5000평) 규모 농지를 비롯한 일대 부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크고 작은 싱크홀 10여곳이 발견됐다.

마을 주민들은 싱크홀 지름이 3m에서 최대 8m까지였으며, 깊이는 최대 2m 이상인 곳도 3곳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6월23일에는 지름 8m 크기 대형 싱크홀이 와룡리에서 발견됐다. 이 싱크홀은 키 175cm 성인 남성이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싱크홀 발생지점은 독으로 나뉘어진 위·아래 농지였다. 아래쪽에 있는 논(2644㎡)은 고려시멘트가 지난 2월 마을 주민으로부터 사들였다. 윗쪽 논(1640㎡)은 주민 김병훈(72)씨가 임대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김씨는 “고려시멘트가 사들인 부지와 일부 마을 주민들의 땅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고려시멘트에서 땅을 메워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들어와 그대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싱크홀을 메웠다”고

주장했다.

장성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싱크홀을 메우는 현장사진을 입수해 고려시멘트 측에 문의했으나 ‘자기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며 “그러나 사진에는 고려시멘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 인근에 있는 석회석 광산의 1km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또 100m 떨어진 곳에서 KTX고속철

도가 놓여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대 장성시민연대 상임이사는 “와룡리 등 인근마을은 광산 발파 때면 진동으로 집이 흔들려 불안에 떨고 있는 데도 고려시멘트측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부인한다”며 “업체측은 싱크홀이 발생한 일대의 땅을 시세보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시멘트 측은 “장성시민연대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농지에 발생한 싱크홀 현상은 순도 높은 석회석이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며 “지하수 흐름에 따라 석회석이 용해되면서 지

반 일부분이 주저앉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시멘트의 한 간부는 “2007년 와룡리 농지 1만㎡를 매입하고 지난 2월에도 회사 계열사에 조정업체가 있어 2644㎡를 추가 매입했다”면서“이는 싱크홀과 무관하며 시멘트로 메운 땅은 고려시멘트 소유이며 계단식 논이 무너져 농업농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않을 것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시민연대와 와룡리 주민들은 다음주 중으로 굴착기를 동원해 주민의 동의를 얻은 농지를 대상으로 시멘트로 메워진 싱크홀을 찾는 등 피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8m짜리 싱크홀

지난 6월 23일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 농지에서 발견된 싱크홀을 마을 주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너릿재 5·18 암매장 발굴도 실패

사람뼈 아닌 돌덩이… 5·18암매장 유해 못찾아

땅 속에서 사람 두개골 형상이 포착돼 5·18 행방불명자 유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옛 너릿재터널 인근 지하에서 바위와 산업폐기물들만 발견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옛 광주교도소,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일대 등 암매장 제보가 있었던 지점으로 발굴 장소를 옮길 계획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4일 너릿재터널 광주방향 도로와 공원 주차장 부지 등 2곳을 발굴 조사한 결과 특별한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작업을 종료했다.

5·18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굴착기를 이용해 너릿재터널 광주방향 입구에서 약 40m 떨어진 도로 1개 차로(폭 4m·길이 4m)를 굴착했다. 콘크리트를 먼저 제거한 후 넓은 삽날(길이 1.2m)을 장착한 굴삭기로 땅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굴착했다. 깊이 1m까지 파내려갔지만 지름 30~50cm 돌덩이들만 쏟아져 나왔다.

인근 공원 주차장 부지에서도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같은 방법으로 굴착

이 진행됐다. 역시 지름 30cm~1m 돌덩이가 확인됐고 노끈, 페비닐, 스티로폼 조각 등이 나왔다. 한 때 깊이 1m 지점에서 옷가지로 보이는 천이 발견돼 관계자들이 긴장했지만 일반 폐기물이었고 페타이어까지 나오자 더는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5·18재단은 작업을 마무리했다.

옛 광주교도소 북쪽 부지에 이어 너릿재터널까지 암매장 발굴조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계엄군이 가매장한 시신을 수습해 이동시켰다’는 설과 ‘발굴지점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오늘 조사한 지점은 제보자 3명이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으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돼 기대가 됐다”며 “목격자가 다수 있는 만큼 확실히 유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토지 소유주 등을 찾아 지형지물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직접 매장했던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18재단은 15일부터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 조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광주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인근 둔치에서도 발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용산동 확정

2020년 완공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가 동구 용산동 자연녹지로 확정됐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동부서 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지난달부터 신청사 설계공모를 하고 있다.

청사 신축 부지는 동구 용산동 자연녹지 2만㎡로 토지 매입 예산 등 사업비 387억원은 올해 9월 광주경찰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 설계안을 완성한 뒤 2020년께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동부서는 건물 노후화, 외벽 균열·누수, 주차공간 협소 등 문제로 2008년부

터 이전이 추진됐다.

현 부지 재건축과 광주 지원중학교 부지 신설안 등이 물망에 올랐다.

청사 이전안은 광주시교육청이 지원 중 재개교 가능성을 들어 부지 매각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현 부지 면적이 좁은 데다 대체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설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기재부 관계자와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신청사 이전으로 더욱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계약정보 알려주고 돈받은 여수 공무원 항소 기각

이른바 공사 수수 브로커에게 계약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수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B(59)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7월 하순께 여수의 한 카페에서 관급 계약 수수 브로커 C(72)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여수시청 발주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가 하면 C씨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로 C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넸받은 혐의다.

B씨는 2015년 7월 하순께 여수시청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C씨에게 관급 계약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가 하면 C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 것 대한 사례 명목으로 C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징역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영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청소원 담당구역서 차량 털다 탈미



○~60대 아파트 청소원이 자신의 담당 구역 지하주차장에서 차

량을 털었다가 경찰서행.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씨(61)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양모(35)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뒤 체크카드를 꺼내 인근 슈퍼마켓에서 6만원 상당 생필품을 샀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애초 훔칠 생각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차량 안에 들어가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지갑의 주인은 여행사직원으로 지갑에 달러, 유로화 등 80만원 상당의 외국 지폐가 들어있었으나 김씨가 환전 법을 몰라 집에 그대로 뒀기 때문에 전부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